

III. 北韓 動靜

(1) IMF 체제하에서의 남북관계 전망

- (IMF경제관리 체제와 남북관계)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지원을 매개로 한 북한 유인책이 무력화되어 대북 교섭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중재자적 역할이 강화될 것임
- (4자회담) 실질적으로 공전될 가능성이 크며 회담이 진행될 경우에도 미국의 중재자적 역할 확대로 남북주도에 의한 회담은 가능성이 적음
- (남북 경협) 기업의 투자 축소와 임금인하 효과로 대북 투자를 통한 경협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남북 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식량 및 경제지원을 매개로 한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은 감소되었으나 동시에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회복과 긴장완화의 새로운 계기를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일 수교) 남한의 대북 교섭력 약화로 북일 접근이 가속화될 것이나 단기간에 수교가 성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IMF 관리체제는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매개로 한 대북 교섭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며 그 결과 미국의 중재적 역할이 강화될 것임

- (IMF 관리체제의 대북관계 여파) IMF 관리체제는 남한의 경제적 자원을 고갈시켜 대북 교섭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남한의 발언권이 크게 약화되고 대신 미국의 중재력이 강화될 것임
 - IMF 관리체제는 재정 긴축, 기업 투자의 위축, 실업 증가를 초래하여 남한의 대북 지원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임
 - 성장률 감축으로 3조 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금융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3조 6천억원의 지출 요인¹⁾이 발생, 정부의 대북 지원여력이 크게 축소될 것임
 - 투자 조정과 사업 축소 등 기업들의 군살빼기로 기업들의 대북투자 의욕이 상실될 것임
 - 실업의 증가로 국민 불만이 커질 것이며 일방적 대북 지원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임
 - IMF 관리체제는 적어도 2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 기간중 대북 지원을 매개로 한 남한의 대북 주도권 행사는 불가능하게 될 것임

1) 조선일보 발표 IMF 보고서 내용중 일부 (Digital Chosun 참조)

남한의 대북 지원 능력의 약화로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대미 접근을 시도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역할이 커질 것임

- 북한은 남한의 식량 및 기타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對미일 접근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임
- (4자회담)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 능력이 축소되어 북한의 4자회담 참여 동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미국의 중재자적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원래부터 남한과의 교섭을 수반하는 4자회담에 소극적이었으나 식량확보와 대미 접근을 위하여 옹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4자회담 참여 인센티브가 기본적으로 대미 접근 기회의 확대라는 의미만 지니게 되어 상대적으로 미국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
 - 미국은 경제제재의 점진적 완화를 통하여 북한의 개방확대와 4자회담에의 지속적인 참가를 유도하려 할 수도 있음
 - 북한은 남한의 대북 견인력 상실을 기회로 보다 적극적인 대미 접근을 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4자회담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도 남북한이 주도하기보다는 북미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남한은 한미 공조에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임

국내기업의 투자 축소, 군살빼기로 대북 진출 여지는 크게 줄어들어 대북 투자진출은 거의 동결될 것으로 보임

- (남북경협) 남한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대북 진출 움직임이 동결될 것으로 보임
 - 대기업의 군살빼기, 중소기업의 부도 여파로 리스크가 큰 북한에 남한 기업이 진출할 여유가 없을 것임
 - 식량지원폭은 크게 줄어들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지원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일본의 식량지원이 확대되면 이들 국가의 대북 교섭력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남한의 견제 역할은 축소될 것임
 - 단, 임가공 무역 동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수송비와 북한의 노동력 비용을 합한 것보다 남한의 임금수준이 높고 또 수송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임가공 교역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북한에 대한 선물을 마련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전망이 어두우나 남북한 모두 경제위기에 처해 있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남한의 대북 교섭력 약화를 기회로 북일 접근이 가속화될 것이나 단기간에 수교가 성사되기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음

- (남북 정상회담 전망) 남한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식량 및 경제적 지원 여지가 크게 축소되어 전망이 어두우나, 동시에 경제 위기에 직면한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하여 긴장완화와 경제회복의 새로운 계기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남한은 경제문제 해결이 최우선과제로 등장하여 일방적인 대북지원 정책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임
 - 단 군사적 긴장완화조치와 연계되고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설 경우에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
 - 북한도 남한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對미일 관계 개선을 더 중시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남북한 모두 경제난에 처해 있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외자 유치를 위하여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

- (북일 수교협상) 98년에는 수교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남한의 대북 교섭력 약화를 이용한 북일 접근이 가속화될 것이나 단기간에 수교가 성사되지는 않을 것임
 - 북한은 일본인 妻의 일본방문을 허용하는 등 북일 수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도 서들지는 않으나 수교협상을 재개할 뜻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은 남한의 지원 가능성이 줄어들어 따라 대일 수교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될 것임
 - 일본도 한국의 견제가 약화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남북 관계 개선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도 수교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음
 - 그러나 과거사 인식 및 배상문제, 북미관계의 진전 정도, 한국의 견제 등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적지 않아 빠른 시간 내에 수교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임

(오 삼 교)